

表紙

古地圖에 나타나는 일본의 세계관

The japanese view of the world appeared in old maps

권 정 kwon jung

발표장소 시일 건양대학교 2001년 10월 27일

K C I

## 要旨

일본과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자국중심의 세계관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은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왜냐하면 중국은 고대로부터 자국을 동아시아의 중심국으로 파악하여 주위국을 문화·정치적 산하에 두었으며, 일본과 한국 역시 그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과 한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사상에서 벗어나 자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구축하려 하였다. 일본은 5세기 후반부터 중국과의 책봉관계를 중지하였고, 다시 중국과 관계를 가지는 7세기에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며, 고구려 또한 중국에 관한 조공을 중지하게 된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육성하게 되며 본 논문에서는 古地圖를 통해 그러한 시도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古地圖란 현대의 지도와는 달리 정확성에 그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세계를 어떻게 파악하며 그 안에서 자국을 어떻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가 하는 제작자의 의도가 표출된다. 본고에서는 「五天竺圖」와 「天竺國圖」를 통해 일본의 自國中心觀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키워드 고지도 중화사상 삼국세계관 변토의식 사국세계관 불교에서의 동북방향의 의미

# 古地圖에 나타나는 일본의 세계관

동경대학 박사과정 권 정

五天竺圖 天竺國圖를 중심으로

## 第一節 문제제기

현대의 세계지도는 정확성, 사실성에 그 존재가치가 부여된다. 하지만 지도라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은 아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지의 세계를 지도에 표현할 때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회화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특히 일본에 한하여 고찰한다면 16세기 이후 서양의 지식이 도래한 후에도 장시간 일본에 있어서의 세계관 중국, 한반도, 인도, 일본이 그 전부였다. 이러한 시기의 지도가 현대지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 지도란 소위 말하는 불교계 세계지도로 세계를 불전에서 이야기하는 瞻部洲로 묘사한 것이다. 瞻部州란 우리인간이 사는 곳으로 『俱舍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瞻部州는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북쪽이 넓고 남쪽이 좁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中天竺國이 있으며 그를 둘러싸고 동서남북에 各天竺國이 배치되어 있다. 북천축의 위에는 九黑山, 雪山이 있고 또 그 위에는 方形의 無熱惱池가 있으며 이가 瞻部州의 중심이다. 마지막으로 香木으로 뒤덮인 香醉山이 연못의 북부에 배치되어 있다.<sup>1)</sup>(地圖)

이렇듯 불전에서 유래한 세계관이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일본에 전해져 긴 기간 일본인은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이 불교계 세계지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기존의 연구 현황과 그 한계를 현재 일본에 잔존하는 불교계 세계지도를 통해 고찰해 가

로 한다.

오늘날 일본에 잔존해 있는 불교계 세계지도 중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것은 法隆寺 北室院소장의 「五天竺圖」(地圖2)이다. 이 지도는 인도, 중국,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은 대륙의 오른쪽 귀퉁이에 震旦國으로 일본은 바다 건너의 小島인 九島, 四國로 표기되어 있듯이 인도가 지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에는 당의 고승인 玄奘이 답사한 여정이 그의 여행기인 『大唐西域記』에 의해 충실히 묘사되어 있다. 이 지도는 고지도 연구의 선구자인 秋岡武次郎를 비롯한 海野一隆, 室賀信夫에 의해서 삼국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로 간주되어 왔다. 삼국세계관이란 세계가 天竺, 震旦, 本朝로 성립되어 있다는 세계관이다. 이는 중세 일본에 있어서 보편적인 세계관이었으며 「五天竺圖」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일본에 존재하는 불교계 세계지도가 모두 삼국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그 이유는 『拾芥抄』에 실린 「天竺國圖」(地圖3)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도는 오천축도와 비교해서 기하학적으로 간략화 되어 있지만 대륙의 중앙에 無熱惱池가 있고 그 남쪽에 五天竺을 동북쪽에 당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천축도와 동계열의 지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두 지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것은 일본과 고려에 관한 것으로 즉 오천축도에는 바다건너에 위치하던 일본이 천축국도에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려가 묘사되어 있다. 즉 이 천축국도에는 오천축도와 같은 삼국세계관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이러한 차이가 이 두 지도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이 두 지도가 불교계 세계지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삼국세계관에서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하는 天竺, 震旦, 本朝의 루트와 실제로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天竺, 震旦, 朝鮮, 本朝의 루트간의 격차를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교가 일본에 전래된 것은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를 통해서였으며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불교와 한반도는 떼 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본의 삼국인식에 있어서 그 일원이 되지 못했다. 이 천축국도는 삼국에 들지 않는 조선, 그리고 불교 전래 국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인식의 갈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즉 이 두 지도는 일본의 조선에 관한 인식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지도의 차이는 불교계 세계지도가 보급된 당시의 삼국에 관한 기록을 고찰함으로써 더욱 명료해진다. 그 대표적인 예로 『今昔物語』의 제 11권 15화 「聖武天皇 처음으로 元興寺를 만든 이야기」라는 설화를 들 수 있다. 이 설화는 원흥사 금당에 안치되어 있는 미륵보살이 사실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東天竺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신라가 훔치고 또 그것을 일본이 훔치어서 현재에 이르고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불상이 天竺, 震旦, 本朝를 건너온 불상이라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서술태도는 이 설화의 원조인 『南都七大寺緣大起』의 「원흥사설화」에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책에는 敏達天皇十三年九月에 백제에서 도래한 석상미륵이 원흥사 동금당에 안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今昔物語』와 같은 천축, 진단의 설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원흥사의 설화는 후에 삼국세계관에 맞는 형태로 변모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이 불교에 관련된 조선을 삭제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축국도가 시사하듯이 일본은 조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지도의 특징에 관해서는 第三節에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첨부주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 세계지도가 일본에서 긴 기간동안 수용되는 요인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불교계 세계지도가 일본에서 장시간 존속하는 이유로 천축에 대한 사모의 념을 들 수 있다. 사실 천축에 가는 것은 일본 불도들의 강한 염원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로 明惠上人을 들 수 있

다. 현재 高山寺에 보존되어 있는 그의 저서인 『印度行程記』의 개요는 이하와 같다.

장안에서 왕사성까지의 里數를 소리오만리로 정하고 이것을 대리삼십육정일리로 고치면 팔천 삼백삼십삼리에 해당한다. 일별로 팔리씩 가면 천일이면 왕사성에 달한다. 매년 일수가 삼백육십일이면 정월일일에 장안을 출발하면 삼년후의 시월십일에는 왕사성에 도달할 수 있다. 만약 일별 칠리씩 가면 천백삼십일이 걸리며 사년째의 이월이십일에 도착한다. 만약 오리씩가면 오년째인 유월십일 우시에 도착하며 천육백일 걸린다.<sup>2)</sup>

이러한 인도까지의 상세한 거리의 계산은 그 나라에 대한 강한 동경심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승에게 있어 천축의 땅을 구석구석 여행한 현장은 동경의 대상이며 그 노정을 묘사한 오천축도는 천축에 대한 사모의 숨을 채워주는 대리품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계 세계지도가 보급된 이유로는 이외에도 중화적 세계관에 대한 저항심을 들 수 있다. 海野一隆, 室賀信夫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옛부터 일본인의 해외지식의 대부분은 중국을 통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전해진 중화적 세계관은 그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국의 국가의식에 위배됨을 느끼지 않고는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교섭이 없는 천축을 종교적 우위에 두어서 일본과 중국을 평등한 위치에 둘 수 있는 불교적 세계관을 선호하게 되었을 것이다.<sup>3)</sup>

成澤光도 유사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평안중기이후 책봉체제밖에 스스로 독립된 외교자세를 세운 후 외교긴장의 상대적 저하와 함께 중국을 제외한 자존적 상만이 비대화하는 한편 실제적으로 중국 大國觀을 극복할 기회가 없었다. 천축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에 의해 비로써 중화대국 또한 邊土의 소국으로 볼 근거가 마련되었다.<sup>4)</sup>

이상의 의견에서 일본은 고대부터 속해있던 중국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것을 소망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육성해가지만 중국을 모방한 율령제도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불교라는 신앙을 통해 직접적으로 교섭이 없는 인도를 시야에 넣음으로서 小中華세계관에서 삼국세계관으로 이행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견에는 일본 불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천축국도에도 표기되어 있는 조선에 관한 일본의 인식이 명확히 나타나있지 않다.

海野一隆, 室賀信夫는 오천축도와 천축국도의 차이에 관하여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이 나타나지 않는 천축국도가 당시의 일본의 지리적 세계관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는 모순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전체서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지도야말로 중세이전의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지리적 세계관의 가장 소박한 표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일본인은 세계는 天竺, 唐, 本朝의 삼국으로 성립된다고 생각했으며 이 삼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남섬부주였다. 이는 불교의 성행과 수미산사상의 영향임은

말할 것도 없다.<중략> 그리고 拾芥抄의 천축국도는 이러한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성급한 결론은 일본의 조선인식이 어떠한 것이었나를 숙고하지 않은 결과이며 또한 불교계 세계지도는 곧 삼국세계관과 결부된다는 전제에 얽매인 결과이다. 일본은 왜 자국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선을 포함한 四國觀이 아닌 삼국관을 고집하였는가. 그 이유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대부터 삼국세계관이 보급되기 이전의 일본의 조선인식을 되돌아보고, 또한 고대에 있어서 일본의 자국확증이 어떠한 형태로 행해졌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절에서는 일본이 고대중국의 압도적인 문화적, 정치적 영향하에서 어떻게 자국의 주체성을 확립해왔는지 당시의 국제상황과 이를 반영한 문헌을 통해 고찰해 가기로 한다. 그 후에 위에서 언급한 오천축도와 천축국도와 같은 불교계 세계지도가 시사하는 것, 이 두 지도의 차이가 시사하는 세계관의 변화란 어떠한 것인지, 지도의 중국에서의 전래과정,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지도내용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第二節 小中華世界觀에 의한 일본의 자국확증

일본은 어떻게 자국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해 가는가. 일본은 중국의 강력한 영향하에 형성된 동아시아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서 자국의 자존성을 탐색해가야 했다. 당시 문화적 정치적으로 막강했던 중국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중국에게 인정받는다는 의미 즉 자국의 우위성을 그 외의 나라에게 공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본도 중국과 책봉관계를 맺어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입한다. 이러한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질서 안에서 일본이 자국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해 나갈 때 중국의 그것을 모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자국에 조공해오는 冊封國을 상징해야만 했다. 즉 중국의 중화사상을 모방한 소중화사상으로 일본중심의 세계질서를 추구해왔으며 그를 위해 일본은 중국에게 조선에 관한 지배권을 요구하게 된다. 일본이 고대국가로 성장해 가는 시기는 4에서5세기에 걸친 시기였으며 조선에 관한 군사지배권을 요구하는 시기도 바로 이때였다. 宋書倭國傳을 보면 438년에 왜왕 진은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이란 칭호를 자칭하며 송에게 정식임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송은 이미 고구려와 백제에게 각각 「使持節都督營平二州諸軍事,征東大將軍」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이라는 칭호를 부여한 후였으며 일본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일본에게는 「安東將軍 倭國王」이라는 칭호가 부여됨에 그친다. 하지만 소중화를 자칭하기 위해서 조선에 관한 군사지배권이 필요했던 일본은 이후에도 그 칭호를 계속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가 중국 측에 의해 수용되지는 않으나 451년에 倭國王 濟는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伽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倭國王」이란 칭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 시기의 일본의 중국에 관한 시각을 西嶋定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왜왕의 건사조공의 주목적은 자국 내에 있어서의 왜왕의 권위강화라는 측면보다는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왜국의 지위강화를 위한 것이었다.<sup>5)</sup>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욕망은 오세기 당시의 조선반도의 정세 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당시는 고구려의 거대한 힘이 백제 신라에까지 미쳤을 때였으며 그로 인해 일본의 백제지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중국에 관한 건사조공을 478년을 마지막으로 중지하게 된다. 일

본은 중국이 부여하는 칭호를 통해 백제를 조공 국으로 하는 소중화세계관을 성립시키려하나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중국에 대한 조공을 중지하게 된다. 이렇게 중국과의 책봉관계를 중지한 일본은 중국중심의 세계질서에서 탈피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모색하게 된다. 그것을 예증하는 대표적인 것이 「江田船山古墳出土鐵刀銘文」과 「稻荷山古墳出土鐵劍銘文」이다.

이 두 철검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하 그 명문을 살펴보겠다.

「船山大刀銘文」

治天下獲□□□齒大王世 奉事典曹人名无利弓 八月中用美鐵一釜 併四尺廷刀 八十練造十握三寸  
上好利刀 服此刀者 長壽子孫綿綿 得王恩世不失其所統 作刀者名伊太加 書者張安也

「稻荷山鐵劍銘文」

辛亥年七月中記 乎獲居臣 上祖名意富比危 其子多名加利尼尼 其兒名弓已加利獲居 其兒名多加披  
次獲居 其兒名多沙鬼獲居 其兒名半弓比 其兒名加差披 余其兒名乎獲居臣 世世爲杖刀人首 奉事  
來 至今獲加多支齒大王 寺在斯鬼宮時 爲左治天下 令作此百練利刀 記吾奉事根原也<sup>6)</sup>

이 두 문장이 나타내듯이 중국에 최후의 사절을 보내 그 덕을 칭송하던 雄略天皇 이 동시기 국내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천하의 주인이라 자칭하고 있다. 「治天下」의 천하는 물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천하이다. 중국에서 벗어나 小帝國을 구축함으로써 일본 중심의 세계를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후에 다시 중국과 국교를 맺을 시에 「日出하는 곳의 天子가 書を 日沒하는 곳의 天子에게 보낸다」라는 국서를 중국에 보내어 煬帝의 신기를 불편하게 했던 일본의 대 중국 관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은 이후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도 책봉관계는 맺지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중국과 대등한 隣國 관계를 유지해 가려한다. 일본이 이러한 소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을 대국에서 隣國으로 격하시킴과 동시에 蕃國의 존재가 필요하였으며, 『令集解』 7의 「公式令」에서 보이듯이 신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신라는 통일신라로 성장해 있었으며 신라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8세기에는 신라의 사절이 번번이 돌려 보내지고 있다. 8세기의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續日本紀』의 743,770,774년 條를 보면 일본측이 신라의 지참 물은 貢物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 신라 측은 土毛, 贈物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측의 인식에 대해 西嶋定雄은 전개서에서 당시의 양국관계의 실태와는 동떨어진 관념적 인식이었으며 이에 대해 신라 측이 대등한 국교를 요청한 것은 당연한 요구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신라를 蕃國으로 간주한 이유는 일본이 고대 천황국가로서의 위신을 강화시켜 일본중심의 천하관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일본의 소중화세계관은 당시의 書冊인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잘 나타나있다. 701년에 大寶律令이 성립되고 710년에 平城京遷都가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712년과 720년에 탄생한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저술목적은 확연해진다. 神野志隆光는 이 두 서책의 의미를 이하와 같이 논하고 있다.

율령의 제정실행과 도성의 조영이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편찬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자명하다. 중국의 율령제도를 토대로 만들어진 고대국가의 완성단계에 『古事記』와 『日本書紀』가 나타난다고 하기보다는 그와 함께 율령국가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이야

기하면 이들의 편찬으로 율령국가가 지탱된다.<sup>8)</sup>

이 두 저서가 어떠한 내용으로 자국확증을 하고 있는지 우선 『古事記』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 책은 중국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일본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神功皇后條」에서 보이듯이 신라를 지배해야 할 나라로 간주하고 있다. 상술한 대 신라정책과 일치하며 神野志가 지적했듯이 이 『古事記』로서 소제국세계관을 완성시키고 있다. 한편 『日本書紀』는 중국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대등한 이웃나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본이 중국에게 조공한 사실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서술태도는 이 두서가 일본이 율령국가로 성장해 가는 8세기에 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관은 율령국가로서의 일본이 무너짐과 동시에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일본은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게 된다.

### 第三節 「小中華世界觀」에서 「三國世界觀」으로의 이행

十세기 전후 唐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세계에 변화가 발생한다. 중화로 군림하던 唐제국은 907년 멸망하고, 그후 五代十國시대가 도래한다. 이러한 중국의 정세는 주위 국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선 신라가 935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후고구려와 후백제가 신라에 반기를 들어 결국 후고구려에 의해 935년에 신라가 936년에는 후백제가 흡수되며 조선반도는 하나의 세력으로 통일된다. 이 통일의 성공은 이전과 같은 중국의 간섭이 없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당국은 隣國이며 신라는 蕃國이다」라는 일본의 공식령의 사상을 뒤엎는 것이었으며, 일본의 소중화세계관도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적으로도 일본의 율령제도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935,936년에 발생한 承平,天慶의 난은 그 대표적인 예로, 平安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이전의 세계관으로 자국확증을 행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며 일본은 새로운 세계관을 탐색하게 된다. 그 세계관이란 이후 오랫동안 존속하게 될 所爲「三國世界觀」이었다. 여기서 주시해야 할 점은 그 삼국에 조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삼국이라는 인식이 불교의 초래와 함께 성립되었음과 그 불교의 전래에 조선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불가사의 한 일이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第一節에서 보았듯이 불교계세계지도에 조선의 존재가 보였다 사라졌다하는 삼국세계관의 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고지도에 보이는 三國世界觀을 분석하기 위해 삼국이라는 인식이 일본에서 보급된 시기가 언제이며 조선의 존재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이하의 문헌을 통해 살펴보겠다.

삼국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문서에 나타난 것은 819년 最澄이 저술한 『內証佛法相承血脈譜』<sup>9)</sup>의 서문을 통해서였다. 이 서책은 最澄이 比叡山에서 행한 가르침이 인도의 석가에서 시작하여 인도와 중국의 고승을 거쳐 결국에는 最澄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명시한 계보 즉 삼국의 相承血脈을 기술한 것이다. 이와 같이 늦어도 9세기초에는 삼국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서책은 철저한 삼국인식을 보여주며 불교전래의 계보에 조선은 편입되어있지 않다.

조선이 결여된 삼국관에 대해 高木豊은 이하와 같이 논하고 있다.

삼국이라는 공간은 조선반도라는 이 나라와 관계 깊은 지역과 거기에서의 불교를 결여시킴으로써 성립된 불교의 創唱과 전파의 역사적 공간을 의미한다.<sup>10)</sup>

이러한 삼국관은 12세기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문헌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들면 12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쓰여진 『今昔物語』(편자미상, 1140년경), 『三國佛教傳通緣起』(疑然, 1311), 『三國傳燈記』(覺憲, 1173년), 『善隣國寶記』(1470년) 등의 저서가 있다. 이하 이들 문헌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今昔物語』

이 서책은 天竺, 震旦, 本朝의 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교적설교적성격이 강한 천여편의 설화가 실려있다. 그 중에서 신라의 설화가 震旦부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本朝부에도 제 16권의 제19화, 제24권의 제5화에 조선관련의 설화가 소개되어 있지만 모두 일본을 무대로 한 이야기로, 조선을 무대로 한 이야기는 震旦부에 실려 있는 신라 승에 관한 것뿐이다. 이 설화는 『三國傳記』 11)에서도 진단부에 편입되어 있어, 조선을 중국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第一節에서도 논했듯이 본조부의 「聖武天皇 처음으로 元興寺를 만든 이야기」에서도 엿 볼 수 있다. 이 설화에서는 佛像이 천축, 신라를 통해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함과 동시에 結語에서는 천축, 진단, 일본의 삼국을 건넌 불상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렇듯 『今昔物語』는 진단과 신라가 다른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편성해 가는 과정에서 조선을 無化해 간다.

② 『三國佛教傳通緣起』 12)

이 서책은 『月望佛教大辭典』에 의하면 東大寺의 擬然이 1311년에 편찬한 것으로 인도, 支那, 일본의 諸종교에 관한 傳通緣起를 간단히 저술한 것이다. 이 책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임나, 백제 梵天의 敎를 전하며 신라, 고구려도 인도의 宗을 餐한다」며 임나, 백제, 신라, 고구려의 불교에 관해 언급하면서도 「이 사실은 알기 어렵고 논하기 어렵다. 우선 삼국의 宗傳에 관해서만 전범의 행적을 논하겠다」고 한 점이다. 조선반도를 일단 시야에 넣으면서도 그 傳通이 알기 어렵고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고 있다.

③ 『三國傳燈記』

1173년 覺憲이 興福寺의 本願인 藤原鎌足를 위해 행한 설법을 기초로 한 것이 이 『三國傳燈記』이다. 원본은 상중하의 三帖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중첩이 분실된 관계로 중권에 쓰여진 일본에서의 불교전과를 저자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삼국을 포함한 불교통사를 나타내는 최초의 서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서이다.

④ 『善隣國寶記』

이 서는 1470년에 쓰여진 외교문서로 고대중국, 조선과의 교섭사의 개략과 1398년에서 1486년까지의 외교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이 서의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불법은 백제로부터 전해졌다. 이를 중국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백제는 진단의 영역이다. 이 서에서 신라 고려에 관해 논하는 것도 이가 진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sup>13)</sup>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삼국의 설화를 논하는데 있어 조선은 생략되거나 震旦에 포함되는 나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사상은 서양문화와의 접촉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는 1577년에 방일한 선교사의 저서 『日本教會史』에서도 엿보인다. 이 서는 「일본인은 지금도 세계를 이야기 할 때 일본, 인도, 중국으로 하며 세계에는 이 삼국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코리야는 중국의 주변국으로 이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sup>14)</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런 삼국세계관을 한층 더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소위 불교계 세계지도로 불리는 「五天竺圖」와 「天竺國圖」이다.

다음절에서는 이 지도의 전래과정, 지도간의 차이를 통해 일본의 삼국세계관이 古地圖에 어떻게 반영되어있는지 고찰해가기로 하겠다.

#### 第四節 佛教系世界地圖에 나타나는 世界觀

##### (1) 불교계지도의 일본에의 傳來

佛教系世界地圖의 기원은 중국에 있다. 법륜사소장의 「五天竺圖」는 玄奘의 인도에서의 路程을 기록한 『大唐西域記』에 기초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지도에 나타나는 지명, 불적은 『大唐西域記』에 의한 것이며, 현장의 노정이 朱色으로 상세히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 지도가 그의 여행기를 본뜬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 있어서의 佛教系世界地圖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원본이 잔존하니 않는 지금 추측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관해 海野는 전계서에서 「南山律宗의 開祖이며 玄奘의 譯場에 출입하며 그의 일을 도운 道宣이 665년에 著述한 釋迦氏譜에 閻浮圖라는 지리적 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一書를 인용하고 있는데 오천축도의 발상이 여기서 유래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五天竺圖」의 기원을 시사하는 것으로 李誦의 墓誌를 들 수 있다. 이에 「又墟唐玄奘法師西域記 選進五天竺圖 上覽之」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로 인해 조선에도 『大唐西域記』에 기초한 지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海野는 『拾芥抄』所載의 「天竺國圖」에 고려가 기재되어 있음에 주시하여, 이포가 언급한 지도가 이러한 유의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도가 전래되지 않는 지금은 다만 「五天竺圖」의 원류가 당송시대에 중국에서 만들어져 조선을 경유 일본에 전래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하 『佛祖統紀』所載의 「東震旦地理圖」(地圖4), 「西土五印之圖」(地圖5) 및 『法界安立圖』所載의 「南瞻部洲圖」(地圖6), 『圖書編』所載의 「西海華夷總圖」(地圖7), 「東震旦國圖」(地圖8) 등의 서책의 지도를 통해 중국지도의 특징과 그것이 일본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고찰해가기로 한다.

① 『佛祖統紀』는 1265년에서 1271년에 걸쳐 南宋의 志磐에 의해 저작된 것으로, 남섬부주 전도를 나타낸 것은 없으나 「西土五印之圖」, 「東震旦地理圖」의 두 地圖가 기재되어 있다. 「西土五印之圖」의 右端에는 「此依西域記所錄 諸國方向最難排比 當觀大略莫疑失次」라는 기재가 있어 이 지도가 서역기를 기초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지도는 서역 인도를 나타내는 地域圖로 「五天竺圖」와 같은 世界圖는 아니다. 여기에 「東震旦地理圖」라는 중국도가 합쳐짐으로서 비로써 세계도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 지도가 시사하듯이 저자인 지반은 세계가 인도, 중국, 狄種으로 구성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도 나타난다.

瞻部一洲 在西爲五印度 飛行輪王之所治 是爲梵天之種 東則震旦 皇王周禮之所化 是爲君子之國 北爲狄種 狁匈奴胡人之鄉 封域分殊

이 문장에 보이듯이 그는 세계를 크게 인도와 중국으로 이분하여 狄種은 그에 첨부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인도와 중국으로 이분되는 지도는 현재까지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이 외에도 『法界安立圖』소재의 「東震旦國圖」가 있다. 이러한 지도는 중국에서 인도중심의 세계관에 대해

중국중심의 세계관이 짝트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② 『法界安立圖』(1562-1577)소재의 「南瞻部洲圖」는 仁潮에 의한 것으로 『佛祖統紀』의 영향을 받은 지도이다. 海野는 前掲書에서 「圖中の 지명은 중국에 기재되어 있는 明代의 지명 두세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佛祖統紀』에 의한 것으로 오히려 의식적으로 이 책에 한하여 지명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도는 『佛祖統紀』와는 달리 인도를 지도의 중심부에 두고 중국을 동북부에 그리고 있다. 이러한 지도의 概觀은 「五天竺圖」의 그것을 계승한 것으로, 이 지도는 세계를 인도와 중국으로 이분하고 있지 않으며 「五天竺圖」와 같이 중앙에 雪山을 두고 이를 감싸는 형태로 東西南北의 四方에 나라를 배치하고 있다.

③ 『圖書編』(1562-1577)所載의 「西海華夷總圖」는 「仁潮圖」와 거의 동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西域記系의 지도이다. 「西海華夷總圖」에 보이는 수많은 나라는 서역기에 보이는 가상의 나라이나, 조선을 반도의 모습으로 기재하고 해안선에 많은 굴곡을 보이는 등 「仁潮圖」보다는 실제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西海華夷總圖」에 관해 海野는 「이는 남선부주의 지도가 불국도에 향한 동경이라는 종교적 성격에서 객관적인 지리상의 제시로 관심의 초점이 이행되면서 비현실적인 표현으로는 만족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도에 관한 설명이 『圖書編』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개략해 보면, 儒書에서는 논어의 가르침이 모두 동으로 흐른다 하였으나 이는 옛 성인이 중국이 인도의 동쪽에 偏在하며 남서북에도 바다가 있음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인도에서부터 서쪽은 중국과는 다른 가르침이 흐르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즉 유서와는 다른 석가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釋典에 의거한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이 지도는 對인도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東震旦地理圖」, 「東震旦國圖」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중국에 「五天竺圖」의 원본은 전해져오지 않으나 다양한 불교계 세계지도가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五天竺圖」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불교계 세계지도의 원류는 중국에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일본의 학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불교계 세계지도의 차이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지도가 중국에서 유래한 사실을 생각할 때 이들간의 비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일본의 불교계 세계지도는 일본의 위치표기에 대해 서로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차이가 무엇을 시사하는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 그 차이에 관해 논한다.

중국의 「東震旦地理圖」, 「南瞻部洲圖」, 「東震旦國圖」를 보면 조선은 동북방향에 일본은 동남방향에 표기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일본 불교계지도의 경우 일본을 동남의 방향에 표기하는 일은 결코 없다. 지도의 전래과정에서 일본의 위치는 변화해간다. 어떠한 이유로 자국의 위치를 중국의 지도와는 다르게 표시했는가, 그리고 이로 인해 생략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이 「天竺國圖」에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하, 그 요인을 모색하기 위해 「五天竺圖」와 「天竺國圖」를 비교 검토하여, 불교계 세계지도가 일본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 그 변화에 일본의 독자적 세계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있는가를 논해가기로 한다.

## (2) 「五天竺圖」와 「天竺國圖」의 특징

「五天竺圖」는 일본에 현존하는 불교계 세계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 지도에서는 卵象

의 대륙에 西域과 唐을 바다 건너 동북의 섬에는 일본을 묘사하고 있다. 이 지도는 삼국세계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도로 알려져 있으나 삼국세계관이 불교의 전래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전래에 커다란 역할을 한 조선이 생략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에 반해 「五天竺圖」와 흡사한 「天竺國圖」는 동북의 방향에 일본 대신 조선을 표기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측 상단의 「天竺震旦間十六萬千里. 大唐日本間三千七百餘里」라는 거리표기 안에 묘사되어 있다. 「五天竺圖」에서와 같은 일본의 위치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五天竺圖」에서는 동북방향에 일본을 표기하는데 반해, 「天竺國圖」에서는 그 자리에 조선을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불교계지도의 원류인 중국지도의 검토를 통해 알아보겠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지도에서 조선반도는 동북방향에 일본은 동남방향에 그려져 있다. 이러한 일본의 위치는 중국의 지리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예로부터 일본은 동남방향에 위치한 나라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의 정사에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後漢書倭傳』에는 「倭는 韓의 동남쪽 海中에 있으며 사람들은 산이 많은 섬에 거주하며 이는 백여국에 달한다」라는 기술이 보이며, 『三國志魏書倭人傳』에는 「倭의 사람들은 帶方郡의 東南에 있는 大海中の 섬들에 거주하며 산과 섬으로 나라와 마을을 이루고 있다」라는 기술이 보인다. 이 외에도 『晉書倭人傳』, 『宋書倭國傳』, 『南齊書倭國傳』, 『梁書倭傳』, 『隋書倭國傳』 등에 같은 기술이 보인다. 이러한 중국지도에서의 일본의 위치는, 지도의 전래과정에서 「五天竺圖」와 「天竺國圖」가 시사하듯 변화해간다. 이렇듯 일본이 동북방향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당대의 문헌에서 모색해보기로 한다. 『今昔物語』의 제11권 12화와, 『神皇正統記』를 보면 일본의 위치가 동북방향에 想定되어 있다. 이 문헌이 1339년에 쓰여진 사실과 「五天竺圖」가 1364년에 쓰여진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일본의 위치상정은 우연한 일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塵荊鈔』(1482년)의 「月氏國의 靈鷲山の 동북쪽에 密陀羅山이 있다. 이 산은 菩薩聖衆이 사는 곳으로 金銀珠玉의 寶山이다. 이 密陀羅山이 崩裂하여 海上에 흩어졌을 때 이자나기, 이자나미의 신이 이곳에 우리 나라를 만들었는데, 神力이 집결하는 곳이다」<sup>15)</sup>라는 기술에서, 일본이 자국을 동북쪽에 위치하는 보살성인이 사는 寶山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古今著聞集』(1254)의 大自在王菩薩이 化生하여 衆生을 이끈다라는 기술과, 『十二天供儀軌』에서의 大自在王菩薩이 동북방향에 위치한다라는 표현을 함께 고찰해보면, 일본에 있어서의 동북방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본에 있어 동북방향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 중국에서의 동남이라는 일본의 위치는 再考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중국의 지도에서 동북쪽에 위치하던 조선을 대신하여 일본이 그 자리에 그려지게 된다. 그 결과 조선과 일본은 함께 그려질 수 없게 되어, 「五天竺圖」와 「天竺國圖」가 시사하듯 어느 한쪽이 삭제되게 된다.

이렇게 일본이 동북방향을 고집한 이유는 일본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했던 邊土意識에서 비롯된다. 자국이 변토의 작은 나라라는 사실을 보상하기 위해 동북이라는 방향을 고집함으로써 자국을 神聖視하려 한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 『塵荊鈔』의 「우리나라는 변토의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同時所成의 세계에 속한다」라는 표현이다. 일본은 삼국이 「同時所成」의 세계에 속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한편으로는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邊土의 나라」라는 자국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邊土認識을 가지면서도 삼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국을 동북에 위치시킴으로서 신성시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榮西의 『興禪護國論』(1198)에서도 보인다. 이 책에서 그는 「大般若經云 我涅槃後 後時後分後五百歲 如是經典 於東北方 大作佛事文 東北方者 日本國是

也」라 하며 일본을 동북방향에 상정하여 변토의식에서 벗어나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八幡愚童訓』의 「梵天의 統治가 끝나고 중화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일본은 타국에 속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는 표현에 일본의 자국의식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五天竺圖」와 「天竺國圖」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해 왔다. 조선을 삭제한 「五天竺圖」와 동북쪽에 조선을 표기하고 있는 「天竺國圖」, 이 두 지도가 상징하는 것은, 세계를 삼국으로 간주하여 자국을 동북부에 위치하는 신성한 나라로 인식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조선, 삼국세계관을 확립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불교를 전래한 조선이라는 對朝鮮認識의 葛藤이다. 이러한 갈등은 前村圓澄의 다음과 같은 의견에 잘 나타나있다.

고대 일본불교를 지탱해 준 것은 백제, 신라, 고구려의 조선반도 삼국의 불교였다. 그러므로 고대 일본 불교를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삼국불교의 개념이 아니라 이에 조선반도를 첨부한 사국불교의 개념이라 사료된다.<sup>16)</sup>

그러나 「五天竺圖」와 「天竺國圖」가 시사하듯 인도, 중국, 조선, 일본을 포함한 사국세계관이 성립되는 일은 없었다. 불교와 관련 깊은 조선을 세계관의 틀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일본은 불교창시국인 천축, 이를 일본에 전래한 중국, 그리고 이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동북에 위치한 신성한 나라 일본이라는 삼국인식을 확립시켜 나간다. 이는 중세의 일본이 自國確證을 행하는 하나의 방도로서, 과거 중국을 隣國으로 백제, 신라를 蕃國으로 간주하던 小中華意識과 같은 노선이라 할 수 있다.

注

- 1) 「俱舍論」 『大正新修大藏經』 第29卷(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1926년),pp.57-58.
- 2) 『梅尾山高山寺明惠上人』(모오산고산사발행, 1931년).
- 3) 室賀信夫, 海野一隆 「일본에서 행해진 佛敎系 世界圖에 관하여」 『지리학사연구』 2 (柳原書店 1962년),p.86.
- 4) 成澤光 『정치의 언어-의미의 역사에 관하여』(平凡社, 1984년),p10.
- 5) 西嶋定雄 『일본역사의 국제환경』(동경대학출판사, 1994년),p.46.
- 6) 宮崎市定 『謎의 七支刀』(中公文庫, 1983년),p.123,p.167.
- 7) 「令集解」 『國史大系』 제24권(국사대계편수회편, 1966년).
- 8) 神野志隆光 『古事記를 읽다』 上 (NHK출판, 1993년),p.161.
- 9) 最澄 「內証佛法相承血脈譜」 『일본대장경』 제44권 (일본대장경편찬회, 1920년).
- 10) 高木豊 「鎌倉佛敎에 있어서의 역사구상」 『思想』 623-626호 (1976년),p.1169.
- 11) 「三國傳記」 『대일본불교전서』 제92권 (講談社, 1972년).
- 12) 「三國佛敎傳通緣起」 『대일본불교전서』 제62권 (講談社, 1972년).
- 13) 瑞溪周鳳 『善隣國寶記』(集英社, 1995년).
- 14) 佐野泰彦 역 『일본교회사』 上 (岩波書店, 1967년),pp.179-180.
- 15) 市古貞次 편 『塵荊鈔』 下 (古典文庫, 1984년).
- 16) 田村圓澄 『고대조선불교와 일본불교』(吉川弘文館, 1980년),p.142.

참고문헌

- 鮎澤信太郎 「佛敎流의 世界圖」 『鎖國時代日本人의 海外知識』(개국백년기념문화사업회편, 1953년).
- 井上秀雄 『古代日本의 外國觀』(學生社, 1991년).

海野一隆 『地圖의 文化史-世界와 日本』 (八坂書房, 1996년).  
應地利明 「繪地圖에 나타난 世界像」 『日本の 社會史』 7 (岩波書店, 1987년).  
『印度世界-그 歷史와 文化』 (世界思想史, 1984년).  
大形孝平 『일본과 인도』 (三省堂, 1978년).  
岡本良知 『16세기에 있어서의 日本地圖의 發達』 (八木書店, 1973년).  
神野志隆光 『古事記의 達成-그 倫理와 方法』 (동경대학출판사, 1983년).  
酒奇雅志 「華夷思想의 諸相」 『아시아 속의 일본사』 5 (동경대학출판사, 1983년).  
定方晟 『須彌山과 極樂』 (講談社現代新書, 1993년).  
坂岡義種 『古代 아시아의 日本과 朝鮮』 (吉川弘文館, 1978년).

## ABSTRACT

Chinese had done an important role in Japanese and Korea pursuing their identity in East Asia. Because Chinese had kept controlling East Asia, and Japanese and Korea had been included in Chinese order which called Joongwha(中華). But gradually both countries want coming out from the influence of Chinese, and make their country the center of the East Asia.

On this paper through reading the old world map, try to investigate their view of the world.

Unlike the map of these days, the value of old maps not on their exactness but on their view about the order of the world. On this paper through which called 「GOTENJIKUZU」 and 「TENJIKUKOKUZU」 trying to read Japanese view of the world. These old world maps are handed down from China. On these Chinese maps, Japan located in the southeast. But the process of transmit to Japan, the location of Japan changed. 「GOTENJIKUZU」 locates Japan at the northeast and omit Korea. Because on the Chinese old world maps, Korea lie in northeast and Japan lie in southeast. To Japan northeast is a sacred position. So Japan lie itself in northeast and regard itself equal to China and India.

권 정 동경대학교 비교문학 비교문화 박사과정  
대전 유성구 구암동 삼정하이츠 401호  
042-822-5408  
E-mail shirijung@hanmail.net